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15】

해방아닌 해방공간의 침묵

동당은 해외에서 귀국한 이승만 · 김구 · 이시영李始榮 등을 민족의 영수領袖로 삼는 한편 건국준비위의 좌경을 규탄하고 미군정에 적극 협력했다.

창당 한 달 뒤인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하자 이들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중심세력이 되어 반탁운동의 선봉이 되었는데 12월 30일 당의 수석총무 송진우가 피살하여 시련을 겪으면서도 1946년 군정자문기구 민주의원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이승만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게 되자 이념을 달리하는 김병로 · 김약수金若水 · 원세훈元世勳 등이 탈당하고 이승만과도 의외의 갈등이 생겨 급격히 쇠퇴하더니 이때의 5 · 10총선 결과 198의석중 겨우 29석을 얻으면서 정계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리하여 한국민주당은 1949년 2월 민주국민당으로 개편되어 1960년 4 · 19가 날 때까지 한국의 제1야당이 되었다. 대동청년단은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의 백산白山 지청천池靑天이 1947년에 26개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발족시키고 그 단장이 된 단체이며 부단장에 이성주李成柱 · 오광선吳光鮮 등이 임명되어 1949년 12월 19일 대한청년단으로 통합개편될 때까지 활약하였다. 조선민족청년단은 족청族靑이라고도 약칭하던 단체로 해방 후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이범석李範奭이 1946년 10월 11일 조직한 우익右翼 청년단체였다. 족청은 처음 비정치 · 비군사를 내걸고 국가지상 · 민족지상의 청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때에 정치운동에 깊숙이 가담하다가 1949년 1월 15일에 해체되어 파벌로서 한국 초기 정치사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분포로 5 · 10총선거가 끝나 198명 의원이 선출되고 1948년 5월 31일에는 제헌국회制憲國會가 구성되어 정부를 수립하는 모체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한민주공화국大韓民主共和國의 헌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 등 수많은 법률을 만들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군정은 끝이 났다.

원래 2차대전에서 이태리와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총통 3거두가 카이로에 모여 회담하고 ‘ 카이로선언 ’이라는 것을 하였다. 여기에서 결정한 중요 사항 가운데 특히‘ 조선 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줄 것 ’이 포함되어 처음으로 조선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는 바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일뿐이고 그 독립의 구체적 절차는 결정하지 않았다. 그후 1945년 7월에 독일의 포츠담에 미 · 영 · 중의 3영수가 모여 회담하고 8월에 소련의 스탈린이 참가해 서명한 이른바 ‘ 포츠담선언 ’에서도 그 13개조항 가운데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여 조선의 독립은 보장되었다. 그리고 1945년 12월 15일부터 27일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 영 · 소의 3상회의에서 조선 독립의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 결정은 조선에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최장 5개년 동안 미 · 영 · 중 · 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둘 것이며, 그 준비를 위해 미 · 소주둔군 사령관은 2주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총력 반대 운동을 벌이는 반면 좌익 진영에서는 처음에 탁치를 반대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조선의 좌우익은 합칠 수 없는 길로 갈라서게 되었다.

1946년 3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회의에서 소련측은 탁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측은 찬성 · 반대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 · 단체를 참가시킬 것을 주장했다. 연일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5월 6일에 마침내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미소 양국 고위층 사이에 절충을 거듭한 끝에 공동위는 같은 해 5월 21일 서울에서 다시 열렸으나 역시 참가 정당단체 문제로 대립하다가 유엔에서 조선 문제가 토의될 때까지 무기휴회되어 사실상 그 기능을 다했다. 미국은 1947년 10월에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 이어 유엔총회에서는 조선문제의 토의를 시작하여 11월 14일 조선의 독립정부 수립을 돕기 위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설치를 의결하였다. 그리하여 1948년 1월 8일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소련은 자기 점령지역인 38도선 이북 지역에 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 다음달 2월에 유엔총회는 조선문제의 정돈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가결하고 소련측은 이 결의를 보이콧하였다. 이에유엔한국위원단은 이해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38선 이남 지역에 총선을 실시하되 38선 이북 지역 의석 100을 남겨둔 채 198의석을 선출하여 5월 31일제헌국회가 개회되게하였던것이다.

제헌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하고 대한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여 동년 7월 17일에 이를 공포하였으며 그보다 앞선 7월 1일에 국호國號를 대한민주공화국으로 확정하였다. 헌법 공포 4일 뒤인 7월 20일에 제헌국회는 정부통령 선거를 하여 대통령에 이승만을,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을 선출하여 24일에 취임식을 거행케 하고 해방기념일인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니 이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이다.

이후로 동년 12월 9일에 유엔총회는 46대 6으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고, 미국 · 영국 · 중국 · 프랑스를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정부수립과 동시에, 또는 그후에 속속 대한민국을 승인하여 외교사절을 교환하였다. 이듬해 1949년 봄부터 철수를 시작한 주둔 미군은 6월에 철수를 완료하고 로버츠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수의 고문단만 한국에 남았으며 미군정 때 편성되었던 한국의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는 정부수립과 더불어 한국의 국방군國防軍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정부수립 당시의 정치제도는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있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 · 행정수반 · 국무회의 의장이 되며 정부기구는 11부 4처 3원, 행정구역은 1특별시 9도로 나뉘어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된 뒤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 김시현은 두드러지게 행동에 나선 것이 없고 그 아내 권애라는 더욱 무슨 일을 공적으로 한 것이 없었다. 이종률의 전기에 의하면 김시현이 1949년 8월까지 정치활동에 참여한 것은 김규식이 주도한 민족운영강화民族運營强化위원회 운동인데 이것이 이때에 이르러 한민당 계열 지도자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고 하고 있다. 원래 영문학자인 김규식은 김시현과 친숙한 사이였거니와 그 혁명과 정치적 노선을 끝까지 같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시현보다 두 살 위로서 1881년에 동래東萊에서 난 김규식은 청풍淸風이 본관이고 동래부사東萊府使의 막하 교수敎授이던 김지성金智性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조선에 파견온 청淸의 원세개袁世凱가 내정간섭을 함에 대해 김지성이 일본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상소를 올렸는데 이것이 문제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다. 게다가 7세 때에 어머니마저 병사하여 그는 고아가 되었다. 마침 조선에 나와 선교하던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Underwood에게 발견되어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얻고 성장하였다. 1897년에 17세로 미국에 가 버지니아주 로어노크대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대에서 석사를 받아 1904년에 귀국해서는 언더우드 목사의 비서와 YMCA학교 교사, 경신儆新학교 학감學監, 연희전문 강사 등을 지내며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부위원장이 되기도 하였다. 1913년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화북華北과 몽고에서 상업을 하기도 하고 1916년에는 미국 상사의 울란바토르지점장이 되기도 하였다. 1918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약소민족대회와 1919년의 파리강화講和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했는데 1919년 3월에 파리에 도착해서는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이름으로 항일전선抗日戰線을 구축하고 조선공보국公報局을 설치하여 회보를 발간하면서 젊은층을 모아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해 대표가 되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족되자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위원장과 학무총장 등에 임명되고 1921년에 모스크바의 동방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하여 상설기구를 창설하고 그 회장이 되어 ‘ 동방민족東方民族 ’을 창간하였다.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여 주석主席이 되고 1942년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1944년에 부주석을 지냈다. 한편 1923년에 만주 복단?旦대학 영문학 강사, 1927년 천진天津 북양北洋대학 교수, 1933년 남경南京 중앙정치학원中央政治學院 교수 등을 지내고 여러 저술과 시집詩集도 냈으며 8 · 15광복 후에는 1945년 11월 23일 귀국하여 12월 27일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문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즉각 반탁反託운동을 전개했다. 1946년 2월에는 민주의원民主議院 부의장이 되고 3월에는 미소공동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했으며 5월에 좌우합작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미군정 좌우합작위원회의 예비회담에 참가하였다. 12월에는 입법의원立法議院의 의장이 되고 1947년 10월에는 민족자주연맹의 의장이 되었다. 이종률이 김시현의 전기에서 민족운영강화위원회라 한 것은 이 민족자주연맹을 지칭함인 것같다. 1948년 1월에 유엔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함을 계기로 김규식은 자기 노선에 더욱 주력하여 남북협상에 정력을 쏟았다. 2월에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안에 반대하고 김구와 연합하여 북측에 남북협상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3월 15일 김일성金日成 · 김두봉金枓奉이 회신함에 따라 협상 5원칙을 제시하고 4월 21일 38선을 넘어 평양에 가 김구 · 김일성 · 김두봉과 함께 4자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성과없이 돌아와서는 5월 14일 북측의 제2차 남북협상 제의를 거절하고 5월 21일 통일독립촉성회統一獨立促成會를 결성하여 5월 30일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불반대 · 불참가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 정치활동에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정계에서 사실상은퇴했다.

이처럼 김규식이 5 · 10제헌의원 선거에‘ 불참가 · 불반대 ’를 함에 따라 노선을 같이한 김시현도 이 선거에 출마를 아니하고 따라서 권애라도 부인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정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규식과 협력관계였던 김구는 남한만의 선거에 의한 단독정부수립 방침에 절대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불참불반의 입장인 김규식보다 강경하였다. 김구는 1948년 2월 10일 ‘ 3천만동포에게 읍고泣告함 ’이라는 성명을 통해‘ 마음속의 38선을 무너뜨리고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세우자 ’고 강력히 호소하였다. 분단된 상태의 건국보다는 통일을 우선시하여 5 · 10선거를 거부하기로 하고 4월 21일 평양에 가 남북협상 4자회담에 임했으나 성과없이 5월 5일 서울로 돌아왔다. 김구는 그후로도 김규식처럼 정계에서 은퇴하지 않고 한국독립당을 정비하고 건국실천원양성소建國實踐員養成所의 일에 주력하며 구국통일의 역군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8월 15일에 서울에서 남한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에 평양에서 조선인공 정부가 선 뒤에도 김구는 민족과 국가의 분단의 비애를 안고 통일운동을 재야에서 전개했다. 이것이 집권세력으로부터는 눈의밖에 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자택 경교장京橋莊에서 현역 육군소위 안두희安斗熙의 총격으로 백주에 암살되었다.

이같은 김구의 암살 소식에 김시현은 격분했다. 그 아들 김봉년이 그로부터 40년 후인 1989년에 한 일간 신문의 기자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당시 김시현은 김구의 피살 기사가 난 신문을 보며 ‘ 이것은 분명히 이승만의 짓이다. 함께 고생하며 독립운동을 한 처지에 정적

11면으로 계속